

DJ 현실정치 발언 왜 자주 하나

'햇볕 세력' 정권 잇기... 초강수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대선 국면에서 정치권 일각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현실정치에 깊숙이 개입하는 발언을 연일 계속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열린 우리당 전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분당, 대북송금 특검, 안기부 X파일 미공개 등 세 가지 문제를 적시하면서 "대통령 과정에서 열린 우리당이 책임지고 사과했어야 한다"고 질책하는 한편, "민주당 일부 지도자들이 민주당의 전통에서 벗어났다"며 조순형 경선후보를 비판했다.

김 전 대통령은 또 휴일인 지난 26일 대통령민주신당 추미에 경선후보를 만난 자리에서도 "결국 우리를 지지하는 모든 국민이 대통령을 지지할 것"이라며 민주신당에 힘을 실었다.

독자 후보 내세운 민주당에 불편함 드러내

조순형 "대선 잇단 혼수 이해하기 어렵다"

연일 계속되는 김 전 대통령의 현실정치 관련 발언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찬반 논란이 거세다. 호남에서는 아직도 영향력이 막강한 김 전 대통령이 대선정국이라는 예민한 시기에 하는 발언 한마디는 어느 정치인보다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사실 김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수년간 정치적인 발언을 자제해 왔다. 하지만 올 들어 이 같은 입장이 변했다. 먼저 대통령 필요성을 역설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처음에는 박지원 비서실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찾아오는 범여권 대선주자들에게 노골적으로 대통령을 주문했다.

최근 들어서는 대통령을 거부하며 독자 후보를 내세운 민주당을 향해 불편한 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김 전 대통령의 행보를 정치권에서는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을 통해 한 나라당과 양자 대결구도를 만들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양자대결을 통해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동교동계의 관계자는 "김 전 대통령은 거의 매일 올 대통령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인들과 나누고 있다"며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만이 올 연발 대선에서 민주세

력의 승리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열어두는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 범여권 정치권에서 한나라당과의 양자구도를 만들었다면 DJ가 나설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현재 범여권의 정치력 부족이 DJ를 부르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순형 의원은 지난 24일 전북CBS와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본인이 추진했던 햇볕정책이 무효화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 햇볕정책이 기본취지나 기본방향은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계속 추진될 것"이라며 "왜 그렇게 집착을 가지고 이렇게 현실 정치에 개입하는지 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권영길 "지방세 신설 찬성" 노회찬 "종부세 폐지 해야" 심상정 "국가 균형원 검토"

민노당 지방분권 정책 분석

민노당 대대 경선후보인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후보 등 진보주의 진영 내부에서도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분권 분야에서는 권 후보가 가장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반면, 지역균형발전에선 심 후보가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지방분권국민운동과 광주일보·부산일보·매일신문 등 전국 주요 지방일간지 연합체인 한국지방신문협회에서 지난 22일 민노당 대선 후보 3명에 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내 그들의 답변을 비교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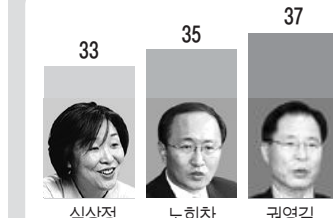
이뤄졌다.

분석 결과 지방분권 분야에서는 권영길 후보가 3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분권 의지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어 노회찬 후보 35점, 심상정 후보 33점 순이었다. 이에 비해 지역균형발전에서는 심상정 후보가 34점으로 제일 높았고 노회찬 후보 33점, 권영길 후보 30점으로 나타나 지방분권과는 역순이었다.

지방분권 분야에서 권 후보는 '지방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신설을 찬성한다'고 답하는 등 재정분권을 강조해 점수가 높았다. 이에 비해 노회찬, 심상정 후보는 '부작용이 많아 다른 대안 검토'라고 답했다. 노, 심 후보는 '지방교부세를 인상을 통한 지방재원 확충을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라고 답했다.

국가균형원 설치에 대해 권영길, 노회찬 후보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심상정 후보는 '신중 검토'라며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 지방분권지수 (40점 만점)



■ 지역균형발전지수 (40점 만점)



(경선기호순)

두 "폐지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

"종합부동산세 조정" 질문과 관련, 권영길 후보는 "폐지를 신중히 검토", 노회찬 후보는 "폐지하고 다른 대안을 모색", 심상정 후보는 "세수역진성 완화에 도움 되므로 유지 필요"라고 답해 입장이 각각 달랐다.

지역균형발전 분야에서 세 후보는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다.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 대폭 감면 질문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적절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지역인재 활달채 부분에서는 세 후보 모두 공공부문은 물론이고 사기업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모색하여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이영박, 박근혜 캠프를 대표했던 초선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화합 오찬을 가지며 건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원내대표 안상수의원

정책위의장 이한구의원



한나라당의 새 원내대표에 국회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3선의 안상수 의원(경기 의왕·과천·사신 왼쪽)이 선출됐다.

원내대표 경선에 단독 출마한 안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 의원 95명의 박수 속에 별다른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임기 1년의 신임 원내대표로 추대됐다.

경남 마산 출신인 안 의원은 검사와 인권변호사를 거쳐 15대 총선 때 정계에 입문해 이회창 전 총재 특보와 당 대변인 등을 지냈다.

원내대표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에는 안 의원과 함께 출마한 재선의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갑·오른쪽)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李, 내일 DJ 만나다

오늘부터 국가 원로급 지도자 잇단 면담

한나라당 이영박 대선후보가 전직 대통령 등 국가 원로급 정치지도자들을 잇따라 만나는 등 대외행보를 본격화 한다. 특히 이 후보는 오는 29일 김대중(DJ)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

획이다. 이 후보의 핵심 측근은 27일 "이 후보가 29일 오후 김 전 대통령을 방문할 계획"이라면서 "특별한 의미가 있기 보다는 후보로 당선되고 나서 공

식 인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28일 오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를 방문하며 30일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 31일 오전 김중필 전 자민련 총재를 각각 예방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김수환 전 국회의장과 함께 만났으며, 노태우 전 대통령은 건강문제로 면담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朴 "마음 아프기 그지 없어... 죄스러울 뿐"

집거 끝내고 중국집서 캠프 해단식 서청원 "기고만장한 사람 승자 못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27일 경선 패배와 관련, "오직 죄스러울 뿐"이라면서 "여러분(지지자들)이 보내준 그 큰 사랑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시내 한 중국음식점에서 열린 캠프 해단식을 겸한 만찬 회동에 참석, "여러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경선 패배후 7일만에 공식 석상에 처음 모습을 나타낸 박 전 대표는 "여러분께서 나의 명분으로 순수한 도와주셨기에 그 마음을 생각하면 오늘 제 마음이 아프기 그지 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경선 패배 직후 연설을 통해 경선 결과 승복 및 정권교체를 위한 협력 방침을 밝혔던 박 전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는 당의 화합이나, 이 후보 중심의 정권교체 등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날 캠프 해단식에는 당초 예상인원 8백명의 두배가량 되는 1천500여명이 몰렸다.

박 전 대표에 앞서 인사말을 한 안병훈 선대위원장 "국민선거인단이 행한 투표에서는 이기고 여론조사에서 저 패하는 어찌구무 없는 현실을 놓고 분하고 원통해서 밤잠을 못자면서 일주일을 보냈다"며 "선대위원장으로서는 박 전 대표에게 죄스럽고 모든 지지자들에게 죄스럽다. 역사에 죄를 짓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청원 캠프 삼일교문은 "박근혜측 사람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한 이영박 후보측 이재오 최고위원을 겨냥해 "무슨 반성을 하느냐. 선거인단에서 승리한 것을 반성해야 하느냐"며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했어도 (이 후보측이) 선거인단에서 졌다. 왜 당원들이 등을 돌렸는지 그들은 그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어 "안하무인적이고 기고만장한 사람들은 절대 승리자가 될 수 없다"면서 "국민의 마음을 달래고 하나가 되려해도 시원함은네 누구보고 겁받지게 반성하라고 하느냐. 그들은 아직도 정성을 못차렸다. 그래서 집권할 수 있겠느냐"고 격양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KALTOUR (우)신애여행리조트산업. Lists travel packages for Jeju Island, including tours to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National University, and Jeju National University.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KALTOUR.

Advertisement for '장수촌 쌍탑' (Jangsoon-som Ssangtap). Features images of traditional Korean food and text promoting the restaurant's long history and quality.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Jangsoon-som Ssangtap.